



한국출판학회, 16회 한중출판학술회의 출판 국제화 현황과 전망...한중 전문가 5개 소주제 발표

한국출판학회(회장 윤세민)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중구 태평로 소재 뉴국제호텔 16층 회의장에서 제16회 한중출판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출판의 국제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한국과 중국의 출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출판의 국제화,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한중출판학술회의는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와 중국 국가출판연구기관인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출판을 주제로 매년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국제출판학술회의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제16회 한중출판학술회의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재호 원장, 대한출판문화협회 고영수 회장, 한국출판학회 윤형두 고문 등 국내 출판계 인사와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위옥산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산하 인쇄연구소 장우령 소장, 정책법규연구소 조병 소장, 시장발행연구소 장효빈 소장 등이 중국 출판계 인사로 참석했다. 윤세민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출판학술회의는 대한민국의 대표 출판 연구단체인 우리 학회가 중국과의 우호적인 출판교

류를 목적으로 중국 국책 출판연구기관인 '중국신문출판연구원'과 1996년부터 매년 상호 국가의 수도에서 교차 개최해오고 있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다"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의 출판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출판이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중국 출판 시장의 개척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의 국제화 현황과 전망 대주제 5개 소주제 진행

이날 국제세미나는 '출판의 국제화 현황과 전망'이라는 대주제 아래 ▲번역 출판 ▲저작권 ▲콘텐츠 개발 ▲국제교류 ▲한중출판학술회의의 의의 등 5개 소

주제로 진행됐다.

▲번역 출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김선남 원광대 교수와 조병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정책법규연구소 소장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에 대해 권호순 시간의물레 대표와 장효빈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시장발행연구소 소장 ▲콘텐츠 개발과 출판의 국제화에 대해 이희진 다락원 출판사 대리와 이진홍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출판참고' 잡지사 부사장 ▲출판학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황민선 김포대 교수와 장우령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인쇄연구소 소장 ▲한중출판학술회의의 의의와 전망(대표 기조발표)에 대해 이중국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와 위옥산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원장이 각각 발표했다.

중국, 한국 저작권 수입 도서 10년새 비약적 증가

중국이 한국에서 저작권을 수입한 도서의 양은 1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4년 한국에서 저작권을 수입한 도서의 종류는 250종에 지나지 않아 독일, 프랑스에 이어 6위였다. 2005년 2배로 증가해 554종에 이르렀고 독일, 프랑스를 뒤로하고 4위로 올라섰다. 이후 해마다 계속 증가하며 4위를 유지했고, 2013년에는 1472종으로 확대됐다. 한국에서 저작권을 수입한 도서는 비교적 트렌드, 미용류의 청춘문학류 도서가 대다수였다. 초기에는 한국영화, 드라마 열풍으로 ‘엽기적인 그녀’,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을 도입했고 그 뒤로는 김하인의 ‘국화꽃향기’, ‘허브를 사랑하나요’, ‘목련꽃그늘’ 등 대표적인 연애소설, 귀여니의 ‘늑대의 유혹’, ‘그놈은 멋있었다’, ‘아웃사이더’와 ‘도레미파솔라시도’ 등의 청춘문학을 수입했다.

한국 도서의 번역 출판은 주로 대중소비, 유행문화 분야에 집중됐고 미용, 화장품, 레저, 영화드라마, K팝 등 한국 특색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번역 출판된 도서는 주로 생활류, 트렌드류, 아동류와 청춘문학류 등 스낵문화다.

이러한 패스트푸드식 소비문화의 인기 상품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중국 독자들이 진정한 한국문화와 한국문학의 고전작품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했고 2002년에는 중국 대륙에서 번역 출판한 김동리의 단편소설 선집 ‘무녀도’와 대만에서 번역 출판한 황석영의 소설 ‘오래된 정원’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부터 대대적으로 한국문학작품의 한역 사업을 도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의 번역을 지원했다.

조빙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정책법규연구소 소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층 더 진

행됨에 따라 중국 출판업도 개혁 발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이라는 기본 국가 정책 덕분에 중국 출판업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되어 번역출판은 더 개방되고 체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 오프라인 서점 성장

중국신문출판연구원 통계센터에 의하면 2013년 말까지 중국에는 오프라인 서점이 12만4387개가 있다. 이중 국유 오프라인 서점은 9255개, 민영 오프라인 서점은 11만5132개가 있다. 2013년 전국 출판물 소매 총액은 757.6억원으로 그 중 오프라인 서점의 판매액은 581.6억 원으로 76.8%에 달한다. 오프라인 서점이 디지털화의 충격을 받았지만 전국 출판물 소매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직 도서출판시장에 일정한 발전공간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여러 유명했던 오프라인 서점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오프라인 서점의 존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잇따라 관련 정책과 자금 지원으로 지지해 주었기에 중국의 오프라인 서점은 생존을 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장우령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인쇄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신문출판업은 구조조정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 시기의 개혁과 축적을 거쳐 오프라인 서점의 발전은

점차 우수한 형세로 나아갈 것이다.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14년 중국 도서 소매시장은 지난 2년전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와는 달리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는데 증폭은 3.26%에 이르렀고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판학술교류 통해 출판발전 기여

한중 출판학술회의는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와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쌍무관계로 교류하는 학술 연찬회다. 1996년 1월 5일 첫 회를 연 이래 2015년으로 16회에 이르렀다.

이중국 한국출판학회 고문은 한중 출판학술 교류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한중 양국간의 출판학술 교류는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자국의 출판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모색을 위한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토론회다. 두 기관간에 본격적인 출판외교를 이어나감으로써 전문 분야의 학문적 인적 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두 전문기관간의 교류는 창립 당초부터 고유한 쌍무관계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존재 의의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학술교류가 양국의 출판학 연구와 출판발전을 위한 저력의 수원지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합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하는 윤세민 한국출판학회 회장



축사를 하는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인사말을 하는 위관산 중국 신문출판연구원 원장